제1회 쌍용 리모델링 학생 공모전

21세기 건축의 새 패러다임 –리모델링의 미래상

쌍용건설(대표이사 金錫俊)이 국내 최초로 개최한「제1회 리모델링 학생 설계 공모전」의 시상식이 8월 31일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2층 그랜드 셀라돈 볼룸에서 열렸다.

'21세기 건축의 새 패러다임 – 리모델링의 미래상' 을 주제로 실제 현존하는 주거 건축물과 일반 비주거건축물에 대한 학생들의 리모델링 설계안을 접수, 심사한 이번 공모전은 총 1,530명이 응모할 정도로 대성황속에서 치뤄졌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한민국 건축대전' 의 평균 응모건수가 1,000건 내외임을 감안할 때 리모델링에 대한 건축학도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셈이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석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쌍용건설은 창사 이래 '품질 최우선' 이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믿음직한 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고 자부한다" 면서 "앞으로는 이번 공모전과 같은 행사를 통해 우수한 인재 발굴 및 건설시장의 토양을 튼튼히 하는 일에도 주력하겠다" 고 말했다.

심사위원장인 서울대학교 심우갑(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는 심사평을 통해 "먼저 후학을 양성하는 사람의 한명으로서 학생들에게 창작활동의 기회를 준 쌍용건설 쌍용건설 김석준 대표이사께 감사 드린다" 고 말한 뒤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어느 때 보다도 돋보였던 이번 공모전에서 주거부문 응모작들은 20년 전 아파트의 내 · 외부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나 시대적 요구를 잘 반영했고, 비주거부문은 그 지역의 문맥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리모델링을 통해 풀어나가려는 노력들이 돋보였다" 고 평가했다.

이번 공모전 영예의 금상에는 'Infra Nexus(강남 고속터미널 리모델링)' 안을 출품한 한양대학교 대학원 4기 이정환(28) · 서정석(32) 팀이 선정돼 부상으로 상장, 상패 및 장학금 500만원이 수여됐다.

이 작품은 기존 건물의 사선 기둥에 의한 구조적 결함을 보완하고 승차장으로 사용하던 데크를 확장해 휴식공간으로 조성한 것이 특징. 또 창의 기능을 상실한 발코니를 없애고 아트리움(Atrium)을 설치해 자연채광과 환기 기능을 극대화 했으며, 지역축제 전시장과 홍보시설, 특산물 쇼핑센터 등의 기능을 추가한 것이 높게 평가 받았다. 은상은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광주 화정동 남부아파트 주상복합」의 리모델링안을 제출한 국민대학교 모성범(24) · 권남근(26) 팀과 광주대학교 최상웅(25) · 정세나(23) 팀이 선정돼 상장, 상패 및 장학금 200만원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이들 외에도 동상 5점(장학금 100만원)과 입선작 34점(장학금 30만원) 등 총 42점의 수상작이 선정됐으며, 은상 이상 수상자와 지도 교수에게는 유럽 등 해외건축체험 기회가 주어지고 동상 수상자까지는 회사 입사 지원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쌍용건설 리모델링 박윤섭 팀장은 "향후 5년간 5조 원대 시장으로 성장할 리모델링부문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업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 했다며 "공모전을 통해 전문가들도 감탄할 정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았던 것이 성과" 라고 밝혔다.

한편, 리모델링은 쌍용건설이 강한 애착을 갖고 전략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다. 쌍용건설은 지난 2000년 업계 최초로 리모델링팀을 구성한 이래 업계 최다인 약 300여 가구의 개별 세대 리모델링 실적을 바탕으로 1,680가구 규모의 개포 공무원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을 수행했으며, 국내 최초의 단지 전체 리모델링 사업인 방배 궁전아파트 리모델링(3개동 216가구)과 강남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한 첫 사례인 도곡 동신아파트 리모델링(6개동 474가구)을 잇따라 수주한 바 있다. 또한 1999년 싱가포르 최대 권위 리모델링 상인 URA Awards(차이나 스퀘어 리모델링)와 2002년 제 1회 대한민국 리모델링 대상(루이비통 청담동 매장), 2004 서울사랑시민상 리모델링 부문(올림픽 체조경기장 리모델링)을 수상하는 등 이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 받아왔다.

금상 /

한양대학교 대학원
이정환, 서정석

출품부분
일반건축

제목
INFRA-NEXUS
(SEOUL EXPRESS BUS TERMINAL RENOVATION)

작품설명 1976년부터 영업이 시작된 고속터미널은 78년 본건물 공사를 착공하여 1982년 준공된다. 초기 터미널은 평균 3~4만, 주말 평균 5~6만이 이용하는 서울의 MEGA INFRASTRUCTURE 였다. 전국에서 모여드는 많은 유동인구로 상권이 형성되고, 육중한 MASS와 사선을 이용한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강하게 각인된다. 하지만 주변 아파트 상가와 뉴코아 백화점 등 새로운 시설들의 등장으로 터미널 상가는 상권을 조금씩 잠식 당해 갔다. 터미널 상가는 특성화 되지 못하고 지리적 장점을 주변상가들에 빼앗기게 되었다. 특히 2000년 7호선 개통과 함께 오픈한 CENTRAL CITY에 터미널로서의 상징성까지 위협받고 있다.
터미널이 갖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서울과 지역을 잇는, 시대변화에 따라 진화하는 새로운 INFRA NEXUS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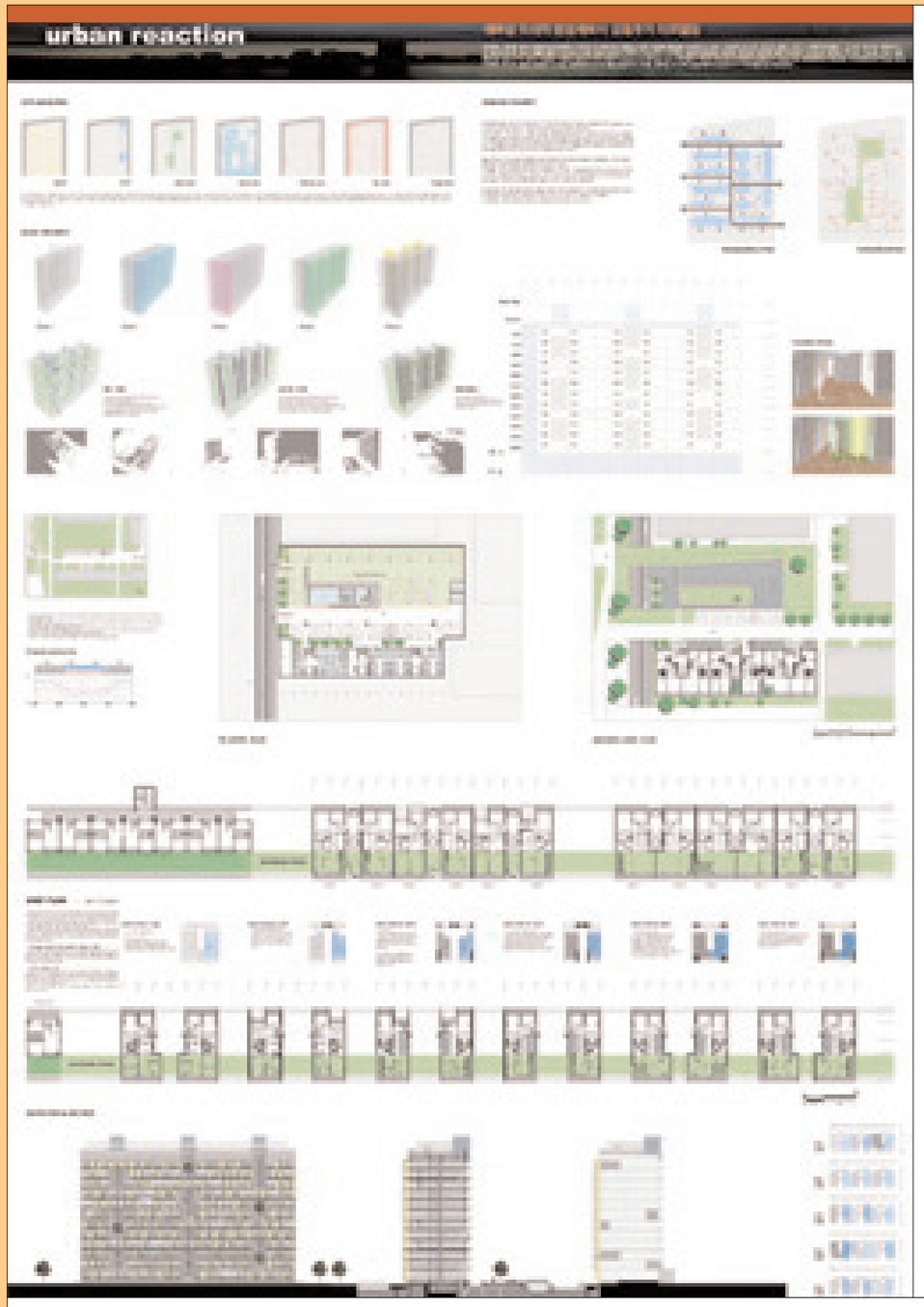
심사평 Infra-Nexus는 사회변화에 따라 기능이 퇴화되어가는 기존의 고속버스터미날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점이 돋보이는 안이다. 현재 실무 현장에서 리모델링의 요구도가 높은 주제를 선택하여 현실적인 대안 제시로 접근한점이 학생 작품으로 높이 평가 되었다. 특히 기존 구조체의 활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작품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대입하면서 공간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참신성이 돋보이고 기존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빠른 시간내에 필요한 요구를 대체해 나갈 수 있는 제안이 높이 평가된다. 리모델링 전과 후의 조건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표현된 판넬구성도 좋은 인상을 준 작품이다.

은상 /

국민대학교
모성범, 권남근

출품부분
공동주택

제목
URBAN REACTION



작품설명 산업화 사회를 넘어 정보화 된 현재의 멀티 도시에서의 변화는 더욱 다양화 복잡화 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구조와 흐름, 그리고 사회적 변화는 도시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도시 생활인들의 라이프스타일 깊은 곳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개인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주거의 기능을 더욱 세분화하게 되고 주거 외적 기능의 수용을 필요로 하게 되며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니라 인터페이스로서 두 요소간의 양방향적 연속성을 가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래적 도시의 삶을 반영할 수 있는 문화로서의 주거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적 반응체로서 공동주거 리모델링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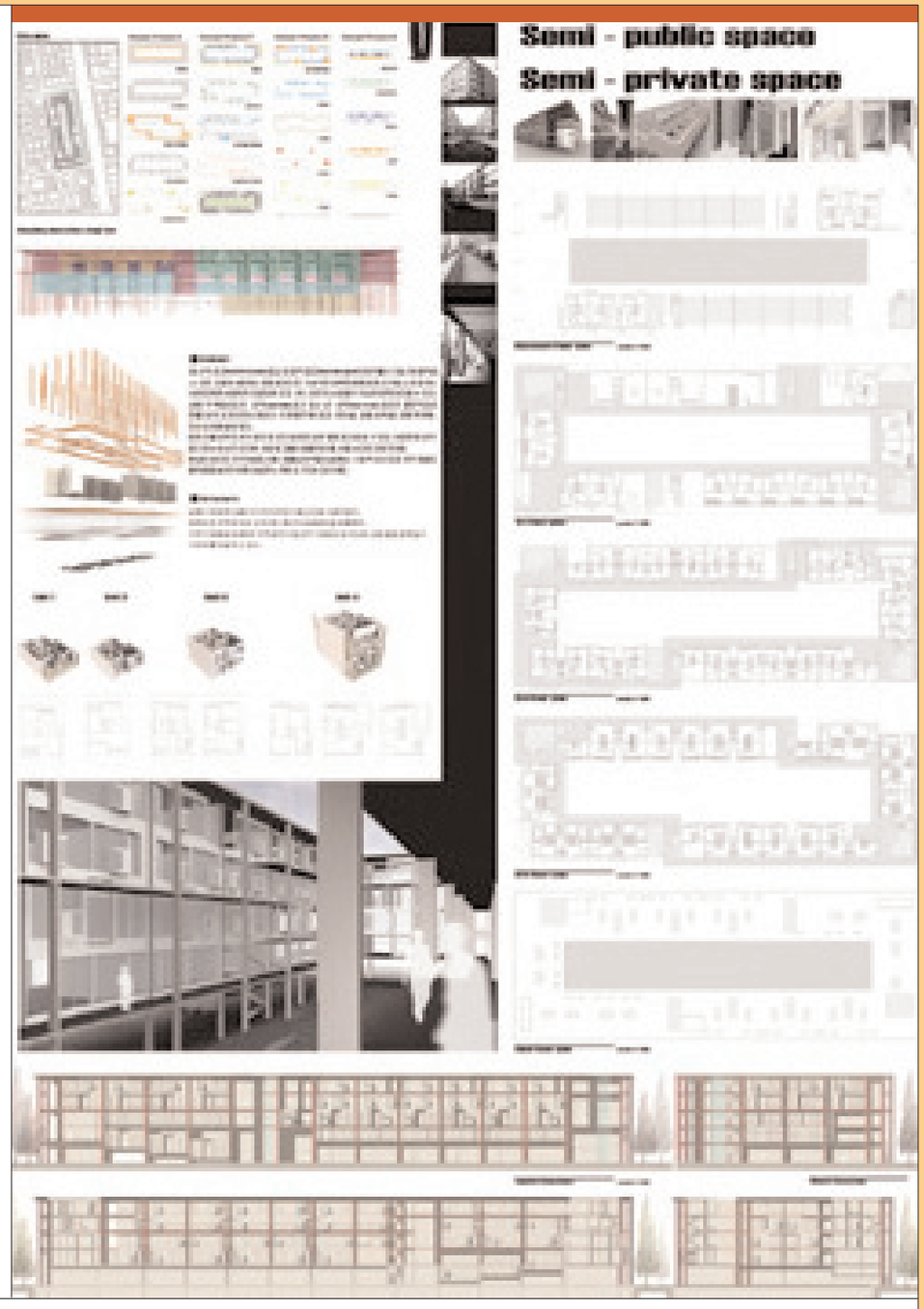
심사평 Urban-Reaction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제안으로 현재 획일적이고 삭막한 여의도 아파트 단지에 리모델링을 통해 외부 공간에서 단위세대 진입 공간까지의 녹지공간의 연결과 단위 세대 연결 통로상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시하는 점이 돋보이고, 이를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아파트 공간에 변화감을 부여하는 디자인 요소로 표현한 점이 높게 평가된다. 특히 다양한 단위세대 공간 제공, 가변형 세대의 제안, 입면의 변화감을 부여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단지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 개선이 다루어지지 않은 점이 미약하였으며, 현실성이 약간 떨어진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는 작품이다.

은상 /

광주대학교
최상웅, 정세나

출품부분
공동주택

제목
SEMI-PUBLIC SPACE, SEMI-PRIVATE SPACE
(반-공적, 반-사적 공용공간)



작품설명 주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저에너지 소비나 저열난방과 저소음 설비와 같은 최소한의 기술적 표준들을 그대로 따르던 관례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다시 보완될 것이다. 변화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인자인 내용(content)이다. 새로운 계층의 등장과 주거 공간의 의미 확대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도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충전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미래 도시공간의 다양한 기능과 조화될 수 있는 보조 시설을 찾아내는 것이다. 반-사적 공간(Semi-Private)또는 반-공적 공간(Semi-Public Space)이라 부를 수 있는 제2영역은 소규모 그룹이 사용하는 공용공간으로, 기초적인 영역에 비해 경제의식과 소유의식이 낮아지지만 사용자가 지정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사유화가 가능한 영역이라 볼 수 있다.

심사평 Semi-Public, Semi-Private Space는 기존 복도형 아파트(광주시)에 대한 환경 개선 프로그램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소규모 그룹이 사용하는 공용공간 제안과 영역성을 고려한 주민 친화형 공적공간 제안이 현재 아파트 거주자들이 자칫 소외감을 가지기 쉬운 문제를 일상생활 속의 이동 경로를 통해 풀어나가는 점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기존 구조체의 활용성이 돋보이고, 단위 주호의 계획에서도 수직 공간의 변화를 통해 기존 구조체의 활용성도 돋보이고, 단위 주호의 계획에서도 수직 공간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복층형 단위 세대를 제안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점이다. 그러나 리모델링 전과 후에 대한 조건 변화가 판넬 표현에서 미흡한 점이 아쉬웠던 작품이다.

동상 /

울산대학교
윤동원, 이건구

출품부분
공동주택

제목
BIO-CULTURE FOR HUMAN

작품설명 산업화 사회를 넘어 정보화 된 현재의 멀티 도시에서의 변화는 더욱 다양화 복잡화 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구조와 흐름, 그리고 사회적 변화는 도시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도시 생활인들의 라이프스타일 깊은 곳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개인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주거의 기능을 더욱 세분화하게 되고 주거 외적 기능의 수용을 필요로 하게 되며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니라 인터페이스로서 두 요소간의 양방향적 연속성을 가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래적 도시의 삶을 반영할 수 있는 문화로서의 주거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적 반응체로서 공동주거 리모델링을 제시한다.

심사평 Bio-Culture for Human이라는 작품은 울산시 주민 설문 조사등 전반적인 현황 분석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분석 및 디자인 과정이 성실하게 표현되었고 리모델링 전과 후에 대한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그러나 창의성과 디자인 세련미의 면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다.

동상 /

영남대학교
추정엽

출품부분
일반건축

제목
HYBRID SPACE-
GAP IN MEMORY
(종로구 통의동
구 금융감독원
Remodeling)

작품설명 1970년에 관공서 건물로 지어진 본 건물이 놓여 있는 사이트는 주위의 전통적 골목 공간들의 흐름 그리고 통의동 전체의 흐름을 단절시키고 있다. 리모델링의 대상 건물은 1970년에 완공된 이후 금융감독원으로 쓰여 졌으며 여의도로 금융 감독원이 옮겨간 이후 비어져 있다가, 현재 부가적인 금융감독원의 연수원 건물로 사용 중이다. 본 건물은 5층 규모로서 통의동에서 가장 높고 거대한 건물이다. 완공될 당시부터 주변 Context와 맞지 않는 과거 관공서의 거대한 스케일과 폐쇄적인 형태로 인해 주변 공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으며, 동서로 놓여진 장방형의 건물은 전통 골목 공간으로 이루어진 통의동 전체의 대지흐름을 막아 통의동의 상측과 적선동 그리고 결국은 사직로, 세종로를 이르는 전체적 도시 흐름의 장애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건축에 있어 Remodeling작업은 〔과거-유지되는 것〕과 〔현재-변화하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서의 괴리를 인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심사평 수상작인 서울 통인동의 금융감독원 건물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 Hybrid space-Gap in Memory는 변화하는 지역여건에 대한 현실성과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성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 해답을 얻어 나가야하는 주제 선정이 좋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주변 건물의 스케일을 고려하여 기존 건물의 매스를 분절하고 건물로 차단된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의 제시 등 컨텍스트의 반응에 대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주변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작품인 반면 역사성을 표출하는 디자인 개념이 미약한 점이 아쉽다.

동상 /

경희대학교
이승섭, 박선민

출품부분
일반건축

제목
SHOW THE
HIDDEN LINE

작품설명 1970년에 관공서 건물로 지어진 본 건물이 놓여 있는 사이트는 주위의 전통적 골목 공간들의 흐름 그리고 통의동 전체의 흐름을 단절시키고 있다. 리모델링의 대상 건물은 1970년에 완공된 이후 금융감독원으로 쓰여 졌으며 여의도로 금융 감독원이 옮겨간 이후 비어져 있다가, 현재 부가적인 금융감독원의 연수원 건물로 사용 중이다. 본 건물은 5층 규모로서 통의동에서 가장 높고 거대한 건물이다. 완공될 당시부터 주변 Context와 맞지 않는 과거 관공서의 거대한 스케일과 폐쇄적인 형태로 인해 주변 공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으며, 동서로 놓여진 장방형의 건물은 전통 골목 공간으로 이루어진 통의동 전체의 대지흐름을 막아 통의동의 상측과 적선동 그리고 결국은 사직로, 세종로를 이르는 전체적 도시 흐름의 장애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건축에 있어 Remodeling작업은 〔과거-유지되는 것〕과 〔현재-변화하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서의 괴리를 인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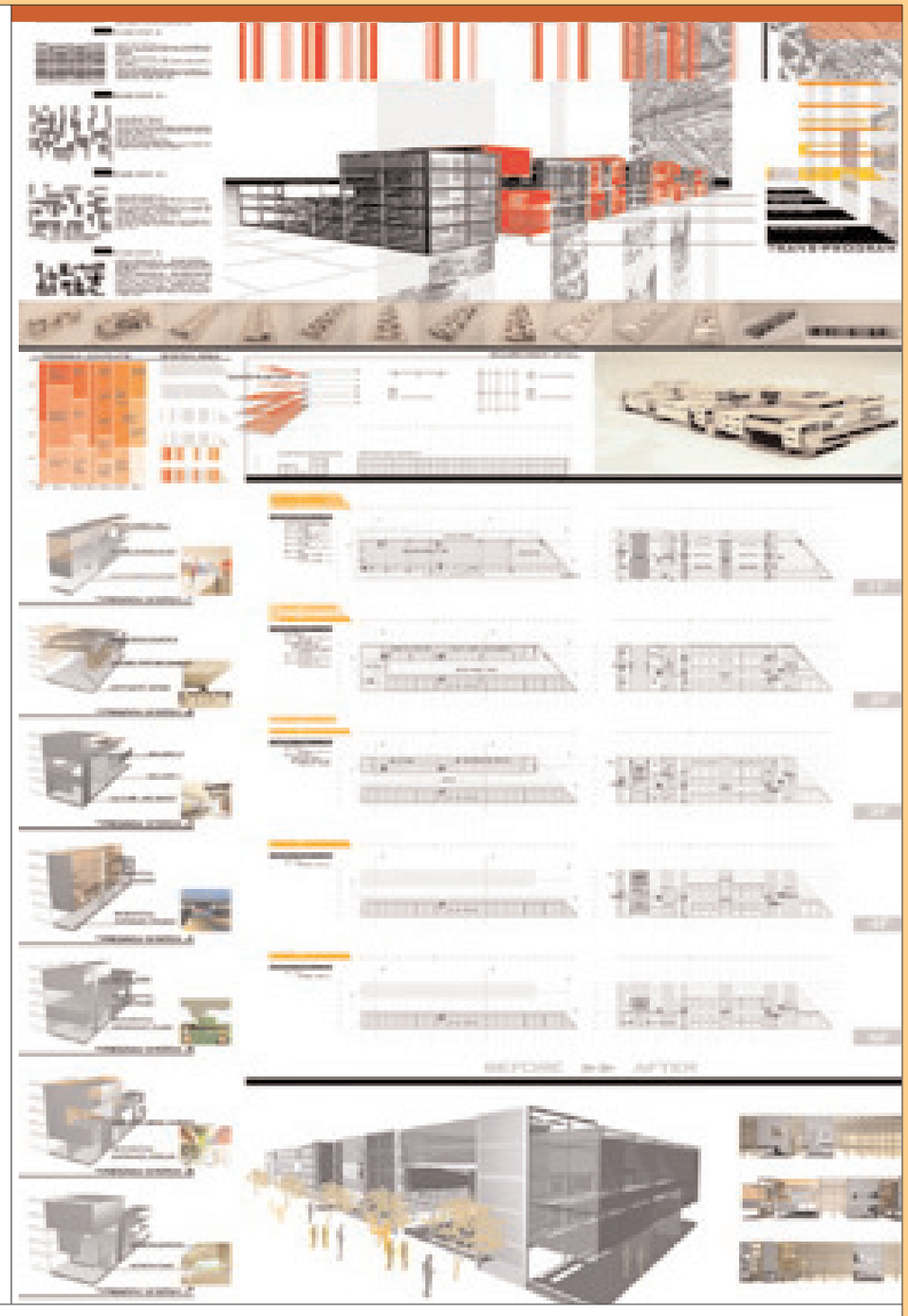
심사평 재래시장(영동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작품으로 시장의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물리적 환경 내에서 과거 시장의 분위기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하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리모델링을 통해 시간의 단절보다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시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연속성을 부여하는 점이 돋보인 작품이다. 또한 주변 컨텍스트와 새로이 제안되는 건물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지역의 장소성을 극대화하는 설계 개념, 기존 구조체 활용에 대한 유연성 있는 설계접근이 참신하다. 설비 및 구조 시스템에 대한 제안이 판넬에 명쾌하게 표현된 점이 돋보인다.

동상 /

국민대학교
김용범, 오세종

출품부분
일반건축

제목
TRANS-INFILL SYSTEM
(유진상가 환경개선 리모델링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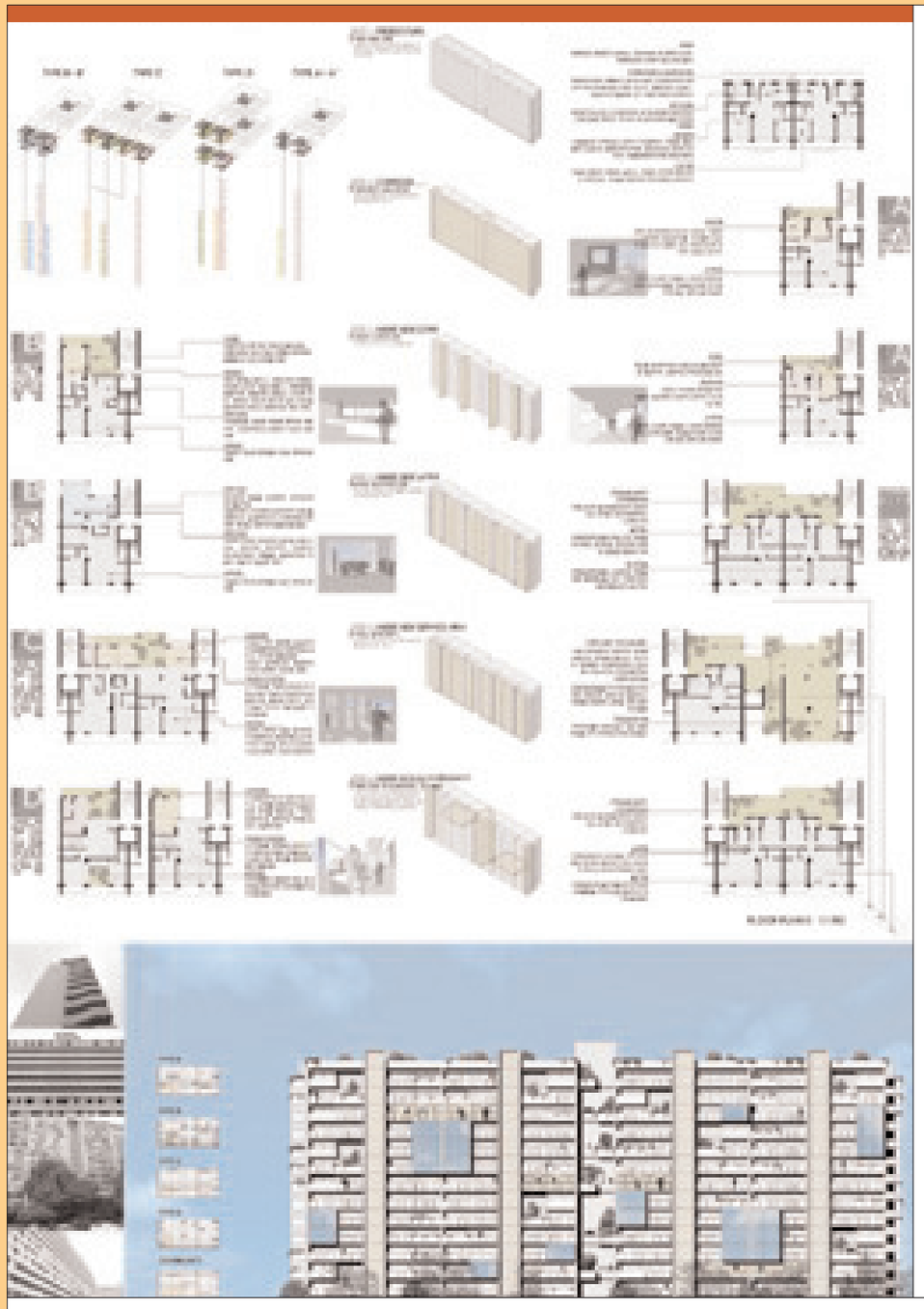
작품설명 근미래 도시생활에 대한 예측과 도시의 유기적인 반응 및 가변성을 근거로 하여 도시에서의 삶의 질적 향상과 다양성을 전제하여 바람직한 질서부여와 도시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는 건축관련산업의 지속적인 불황을 야기하고 리모델링은 이에 대응하는 애안책으로 그 개념부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건축이라는 범주안에서 독립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새로운 방식의 다양한 양식과 방법이 개발되고 실험되어야 한다. 본 계획은 Remodeling의 New type-system에 대한 다양한 방법중 하나를 실험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심사평 Trans - Infill System은 사회 변화에 따라 기능이 낙후하고, 시설이 낙후된 시장(유진상가)을 선택하여 Prototype System제안을 위해 접근하는 방식이 돋보이며, 설계 접근의 근거가 되는 사고 체계에 대한 표현이 좋은 작품이다. 리모델링 전과 후에 대한 표현도 돋보인다.

동상 /

건국대학교 대학원
우민호, 이인원

출품부분
공동주택

제목
THE INSERTION OF NEW CORE & LAYER
(은마 아파트 리모델링 계획안)



작품설명 은마아파트는 31평형과 34평형으로 이루어진 편복도형으로써 4,424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20여년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그 당시 Life System과 현재 Life System의 변화된 생활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실(室) 위주의 구성으로 좁은 거실과 좁은 방들은 거주자들의 생활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평면의 불합리성 외에 입면은 편복도의 평이하고 단조로운 형태의 일관으로 단지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도시미관을 단조롭게 만든다. 이에 리모델링을 통한 CEO-CORE를 두어 복도를 각 세대의 실내로 편입시킴으로 공간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한 방향으로 열려있는 조망을 남측과 북측, 두 방향으로 열어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 더욱 발전시켜 새로운 Layer를 추가 증축함으로써 미래 도시생활에 알맞은 다양한 평면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은마아파트에 도시에서의 지속성을 다시금 재생시키는 작업으로 경제적, 사회적인 부분에서 또한 적합한 개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심사평 공동주택 리모델링(은마아파트)을 제안하는 작품으로 현재의 열악한 커뮤니티 시설과 획일적인 단위세대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특히 주동 내에 커뮤니티 공간을 제안하는 프로그램과 현재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명쾌하게 표현한 점이 돋보이고, 기존 구조체의 활용과 증축을 통한 다양한 공간제공과 다양한 단위세대 유형을 제안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작품이다. 그러나 대단지 아파트이지만 단지전체에 대한 환경개선 제안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심 사 평

심사위원장
/
심우갑
서울대학교 교수

심사위원
/
김혜정
명지대학교 교수

여영호
고려대학교 교수

김도년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상호
연세대학교 교수

민형식
반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최장식
쌍용건설 건축본부장

최근 들어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은 사회 · 경제적으로 매우 필요하고 바람직한 시대적 요구라 생각되며, 우리나라 미래 건축의 주역인 학생들을 대상 리모델링 공모전을 실시한 것은 리모델링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의욕을 고취시키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좋은 홍보가 되는 적절한 행사였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로 실시된 공모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응모작품이 제출되었다는 점과 응모작품들의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는 점에서 우리 심사위원들은 새삼 놀랐고 동시에 흐뭇함을 느꼈다.

주거와 비주거 부문의 자유주제로 다양한 대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시설을 다룬 응모작품 심사에서는 리모델링의 기본 취지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구조체의 활용방법, 사회변화에 따라 퇴화된 기능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제시, 기존 구조체 위에 제안된 프로그램을 풀어 나가는 아이디어의 참신성, 낙후된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컨텍스트의 이해와 신축 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한 사회 역사의 건축적 축적의 고려, 학생 공모전 이지만 현실성에 대한 이해 등을 심사의 주된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심사는 2단계로 실시되어 이틀에 나뉘어 실시되었다. 수 많은 응모작품 중 우선 1단계 심사에서 42작품을 선정한 다음, 선정된 작품들의 모델을 제출 받은 후, 2단계 심사를 실시하였다. 첫날 심사는 심사위원들의 개개인의 평가를 취합하여 다수결 추천방식으로 하였고, 3번에 걸쳐 Positive방식으로 입상 대상작품을 선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심사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입선 대상작 42작품이 결정되었다. 심사의 두 번째 날도 마찬가지로 우선 입선 대상작을 Positive방식으로 심사위원들의 개개 작품에 대한 논의를 거쳐 다수결에 따라 20작품을 선정한 다음, 이들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들간의 토론을 통하여 최종 수상작품들을 결정하였다. 학색 작품으로 리모델링의 접근에 대한 유연한 사고에 대해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주제가 리모델링인 만큼 리모델링 이전과 이후에 대한 명쾌한 제안과 표현, 프로그램의 창의성과 기존 구조체의 활용성 등이 논의의 주체가 되었다.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의 대상 선정은 공동주택이나 일반건축물 분야 모두 현실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시사성이 높은 주제들로 접근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리모델링의 취지를 벗어나 신축 차원으로 제안된 작품들도 상당수 있었고, 또한 도면 표현에서 리모델링 전과 후의 상황을 비교, 파악할 수 없는 작품들이 다수 있어서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으므로, 추후의 공모전에서는 리모델링의 개념 개발 및 도면 표현 방법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앞으로도 쌍용 리모델링 학생공모전이 계속 성황리에 개최되기를 바라며, 리모델링의 토대를 튼튼하게 하고 아울러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의 사회 등용문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산업협력의 공모전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제1회 쌍용 리모델링 학생 공모전
21세기 건축의 새 패러다임 – 리모델링의 미래상

수 상 자 명 단

수상작	출품부분	성명	팀원	학교	작품명
금상	일반건축	이정환	서정석	한양대 대학원	INFRA-NEXUS(고속터미널 리노베이션)
은상	공동주택	모성범	권남근	국민대학교	URBAN REACTION
	공동주택	최상웅	정세나	광주대학교	SEMI-PUBLIC SPACE, SEMI-PRIVATE SPACE
동상	공동주택	윤동원	이건구	울산대학교	BIO-CULTURE FOR HUMAN
	일반건축	추정엽		영남대학교	HYBRID SPACE – GAP IN MEMORY
	일반건축	이승섭	박선민	경희대학교	SHOW THE HIDDEN LINE
	일반건축	김용범	오세종	국민대학교	TRANS-INFILL SYSTEM
	공동주택	우민호	이인원	건국대 대학원	THE INSERTION OF NEW CORE&LAYER
입선	일반건축	박승길	백준우	울산대학교	울산 구교육청사 리모델링
	일반건축	김현덕	김학희	동서울대학	사이공간 : THRESHOLD
	일반건축	강철호	권소영	홍익대 대학원	TRANS POSITION
	공동주택	정지영	차지웅	고려대 대학원	PI-QUPPED REMODELING APARTMENT WITH PIXELS & EQUIPPED WALL
	공동주택	김영록	김정훈	수원대학교	RETRIEVE ONE'S FORTUNE (남산회현시범아파트 리모델링)
	일반건축	이재성	서장완	홍익대학교	NEW VARIETY OF OFFICE
	공동주택	박근형	박종원	홍익대학교	SOCIAL CONNECTION (GLASS BOX를 이용한 정동아파트 리모델링)
	일반건축	박성호	서현옥	홍익대 대학원	BLUR THE BOUNDARIES – 통합과 소통의 공간
	공동주택	최수형	김지혜	경일대학교	SYMBIOSIS
	일반건축	이재우	윤선영	홍익대학교	THE WIND OF CHANGE
	일반건축	이건재		홍익대 대학원	문화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동경이다
	일반건축	김재복	장영철	숭실대학교	ROCK ONE PROJECT
	공동주택	이상철	최광민	수원대학교	CITE DE LA MUSICQUE
	일반건축	정재수	이주혁	충북대학교	INFO-LIBRART
	일반건축	김효준	송승준	경원대 대학원	THE PICTURE OF THE CITY
	공동주택	박진용	신준석	경원대학교	OIKOS-WELL
	일반건축	최영능	이현숙	공주대학교	흐름과 머무름의 기억
	일반건축	윤우용	윤세영	광운대학교	INTER FLOW(문화가 숨쉬는 동대문평화시장)
	일반건축	우상균	신상권	공주대 대학원	FUSION 대전시박물관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
	공동주택	한은수	정동준	충남대학교	CHANGE YOUR LIFE
	공동주택	유춘화		숙명여대 대학원	SHARE(여의도 시범아파트)
	일반건축	신성운	이제원	충남대학교	비우기와 채우기(대전 서부경찰서 리모델링)
	공동주택	조성모	백준호	서울시립대 대학원	공공성의 재생
	공동주택	유선철		인하대 대학원	RENTABLE HOUSING UNIT
	공동주택	김영수	이승윤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	HOUSING FOR URBAN USERS
	일반건축	김동욱		홍익대학교	BOX의 변신(강남대로변의 문화시설 계획안)
	공동주택	최병하	김용성	아주대 대학원	AGING IN THE BIRTHPLACE
	일반건축	전지현		국민대학교	FOLDING ELEVATION
	공동주택	김해진	김원기	목원대학교	REGENERATION HOUSING
	공동주택	김희성	김영훈	국민대 대학원	MIXING THE HOUSING IN COMMUNITY
	일반건축	오세중	김태현	건국대 대학원	ECO PROJECT – 건축대학 리모델링
	공동주택	김용우	김동우	국민대학교	MULTI-SCAPE HOUSING
	공동주택	박상현	김도헌	서원대학교	MAXIMUM REGENERATION
	일반건축	이종훈	김민하	부경대학교	EXPANSION TO XYZ GRID (부전시립도서관 리모델링-상상력 공간의 제안)

금상 이정환 서정석

은상 모성범 권남근

은상 최상웅 정세나